

# 용기를 내라

“주님을 바라는 모든 이여, 담대하라. 그가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리라.”

시편 31:24

성경은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소망, 확신과 신뢰로  
가득 차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해야 할 특별한 이유들을 발견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불신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삶의 기회에서  
최선의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죄와  
고난의 함정을 보기에, 불신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으며, 하나님도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방식으로 그들의 일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15-17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나아갔습니다. 그 깃발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리고 죄에 대한 대항의 깃발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적들에게 포위될 것입니다. 그들 맞서는 자들 가운데에는 사탄 자신이 있을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대적해 왔듯이 그들을 대적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계획과 그분을 믿는 자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일어난 폭동과 소요, 박해는 사탄이 선동한 것이며, 이후로도 주님의 백성을 억압해 온 것은 바로 사탄이다. 고린도후서

2:11; 11:14; 데살로니가후서 2:7-10; 베드로전서 5:8,9

사탄은 자신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미혹당한 종들을 통해 행하였다(데살로니가후서 2:11). 그는 항상 의와 의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대적해 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큰 용기를 가져야 한다. 만일 그들이 원수의 공격에 용기를 잃어버린다면, 그는 곧 그들을 전투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용기를 잃고 후퇴하는 병사는 전투에서 거의 쓸모가 없다. 용기를 잃기보다는, 우리는 이 땅의 관심사를 아버지께 맡기고, 현세에서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 )을 신뢰해야 한다. 로마서 8:28

절대자 외에도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영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특별한 신적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종종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런 영은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수천 천사와 만물을 만드셨다. 그분이 너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너무 위대하시고 우리는 너무 미미해서 우리를 돌보실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2:12

게다가 우리에게는 타락한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몸 안에 가장 강력한 적을 품고 있습니다(로마서 7:18,25).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이 성령을 주셨을 때, 우리 안에서 변화 과정이 시작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태동하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1,2; 고린도후서 5:17). 이 태동하는 새 피조물, 즉 새로운

마음과 뜻과 성품은 우리가 지상 상태에서 천상 상태로 넘어가는 부활의 순간, 즉 영적 탄생의 순간까지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새 피조물]는 썩을 것으로 심겨지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천한 것으로 심겨지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겨지나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신으로 심겨지나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느니라." 고린도전서 15:42-44

그럼에도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싸워야 할 타락한 성향들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것들을 부인하였습니다—죄를 등졌습니다(로마서 6:1,2,11,12). 우리는 세상의 관심과 소망을 하늘의 관심과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매일의 경험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이기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육신의 성향을 억누르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육신의 연약함과 허약함과 끊임없이 싸우며 어느

정도 이겨내면서도, 주님을 위한 희생과 섬김에 추가로 참여하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많은 용기를 요구하며, 우리 스스로로는 부족합니다. 고린도후서 3:5; 빌립보서 3:3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권면을 받으며, "우리로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립보서 4:13)는 확신을 얻습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용기, 모든 믿음과 소망—싸움에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유익한 요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도록 충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9; 히브리서 4:16). 이는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거나 항상 용기를 온전히 발휘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때로 실패할 수 있지만,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는 실수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용기의 다양한 유형

믿음과 소망이 더 강한 이들은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두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는 강한 용기, 바른 용기라는 의미에서 '선한 용기'입니다. 본문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소망'은 선한 용기, 올바른 용기, 경건한 용기로 뒷받침되고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에서 비롯된 용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러서지 마라. 누구에게도 앞지르게 하지 마라." 전투에서 병사들은 서로 경쟁하며, 지휘관이나 동료 병사들의 박수를 받을 만한 특별히 눈에 띄는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명예에 대한 갈망일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비록 용기를 북돋는 데 부적합한 동기이긴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 용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 기반한 올바른 원칙에서 비롯된 용기는 허세나 자랑이 아니라 고귀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곧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8:17; 요한계시록 3:21).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함을 증명할지 시험하시기 위해 철저히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용기는 항상 올바른 길, 곧 주님의 길로 행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권면

이 올바른 용기에 대한 권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옳은 일, 즉 주님의 뜻으로 이해되는 일을 할 만큼 용감해야 합니다. 그러한 용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비록 네 동기가 종종 오해받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든, 장차 올 세상에서든( ) 상을 받게 될지라도 옳은 것을 위해 선한 용기를 가지고 서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모든 율법을 삼가 지켜 행하라. ...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7

용기를 내라는 권면은 그리스도인 사업가에게도 해당됩니다. 세속적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네 사업은 실패할 거야. 사업 광고를 하면 안 돼.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은 네 가게를 찾지 않을 거야. 거짓말이 넘쳐나는 곳으로 갈 테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조언을 따른다면 사업은 더 크게 할 수 있겠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의로운 성품의 개발과 실천을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께 전념한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상황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각자는 올바른 원칙을 옹호해야 하며,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 소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요한복음 3:21; 야고보서 1:22,25). 원칙이 걸린 문제에서는 우리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이러하니, 나는 내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내 의무라고 느끼는 일을 하는 데 만족할 것이며,

타인을 강요하려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믿게 된 원칙들에 대해서는 신실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자신에게 말하는 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직과 진실함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데 용기를 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로마서 12:17

## 믿음에 비례하는 용기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의 삶에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바른 용기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안에서 발휘될 기회를 찾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용기이며, 이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용기입니다. 오직 이들에게만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허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이렇다: 담대하라. 이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길이다. 주님을 바라고 그분께 충성하는 자들은 그들의 충성과 믿음에 비례하여 담대할 것이다. 마태복음 9:29

이런 용기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는 나를 위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리라. ... 너희가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가 말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니라.” (마태복음 10:18,19). 여기서 주된 뜻은 “당신들이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신성한 능력에 의지하며 용감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지혜를 주시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제안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경험을 듣는 것일 수도 있으며, 특히 도움이 될 성경 구절이 마음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의 신뢰가 온전히 주님께

있으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6

주님께서 위의 말씀을 하신 대상은 배운 바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간다는 것은 당연히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그 위대하고 배운 자들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제자들은 매우 겸손했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교육은 오늘날에 비해 훨씬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확신은 제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곤경이나 어려움에 처할 때면,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하듯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구원하시느니라" (시편 34:7). 이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고 차분하게 하며, 우리가 그분과 가까운 관계에 있음을 알기에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각 경험 속에서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할 만큼 지혜롭지 못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일이나 저 일을 어떻게 다스리실지 알지 못합니다.

## “믿음은 그분을 굳게 신뢰할 수 있다”

초기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예언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깊이 고민했습니다.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그분께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마태복음 16:16). 그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께 해가 미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요한복음 6:53-56)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특이한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 마태복음 26:2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유대인 산헤드린 앞에 끌려가셨을 때, 그분의 능력과 응변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며 반박과 비방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크게 당황하며 놀라고 의아해했습니다. 그 후 그들의 스승은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앞에서는 분명 주저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로 훌러가자 제자들은 다시 한번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취하신 이러한

행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필수적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대가, 즉 완전한 인간의 생명이 "모든 사람을 위한 랜섬"으로 제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5,6; 고린도전서 15:22; 로마서 5:18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상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 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든 최선이라면,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경험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섭리에 확신을 가지므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실수하실 만큼 지혜롭지 않으시며, 허락하신 일에는 반드시 동기나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주님 눈에 소중히 여김을 받고 특별히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시편 17:8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 이유를  
분별할 수 있든 없든,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길이 험하고,  
일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담대하라. 그가 네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바라라.” 시편 27:14